

탄핵 내일 11시 선고...인용 땀 5월 9일 대선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일 확정

탄핵소추 의결 92일만에...방송 생중계 허용

경찰, 서울에 갑호 비상령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관련기사 2·3·6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 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운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끝난 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같이 확정했다”고 말했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졌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현재는 하루를 미루 선고 이를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

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특히,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내 변론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다. 박한철 전임 현재 소장은 지난 1월 25일 9차 변론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 공보관은 결론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내일도 평의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 평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당일 오전 최종 평결을 거쳐 곧바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8명만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열리고 있다. 재판관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선고 날짜는 인용을 전제로 차기 대선

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고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인용될 경우 5월 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선고 결과

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당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갑호 비상령은 갑(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령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 비상 상황에서도 연가는 중지된다.
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정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의대 등 선호 학과
지역인재 50% 선발

양극화 해소 교육복지 정책

의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50%로 확대하는가 하면, 다문화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지역을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한 ‘탄력적 학구제’ 적용 및 ‘학교 클러스터 구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을 도입, 학생 수가 급감, 정상적 교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종합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한 것은 지난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10년 만이다.
종합대책은 크게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잠재력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꿈스타리 장학제도’ 마련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국제화특구’로 지정, 특화된 교육 본격화 ▲농어촌 등 인구 급감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 도입 ▲낙후지역 교육자원을 위한 예비교사들의 ‘장기현장실습’ 운영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은 사·도교육청, 학교에 더 많은 예산 지원 등으로 나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5기 입학식’에서 신입 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기 입학식 열려

최진석·손미나·황상민 등

호화 강사진 매주 화요일 강의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기 입학식이 지난 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전남 오피니언 리더들 행복한 ‘평생 만남’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최동석 1기 원우회장, 5기 원우 등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입학식은 축하와 1학기 강의의 일정 소개, 단체 사진 촬영, 원우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여송 사장은 축하사에서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앞장서온 광주일보는 반백년 역사를 뛰어넘는 호남예술제와 3·1절

전국마라톤 등 전국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5기를 맞은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도 지역 리더 교류의 장이자 호남 최고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모든 원우들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위로하는 화합의 장”이라며 “리더스 아카데미를 통해 맺은 인연이 지역 발전, 회원 개개인의 성공과 행복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는 오는 14일 EBS 인문학 특강을 통해 ‘국민 철학교수’로 잘 알려진 최진석 서강대 교수를 초청해 첫 강

의를 여는 것으로 5기 강연 일정을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리는 아카데미에는 KBS전이나운서 손미나씨, 심리학자 황상민씨, 개그맨 권영찬씨, 방송인 샘 오취리씨,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으로 널리 알려진 강영국 전북대 초빙교수, 풍수지리학자 조용현씨, 소믈리에이자 금수장 관광호텔 대표 권홍식씨, 에콜스 요가 창시자 원정혜씨가 1학기 강사로 나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드 갈등’ 중국여행 취소 속출 ▶6면



그림편지-정용규의 모스크바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깨끗하고 안전한
광주수돗물

2017
WATER KOREA
국제물산업박람회

대한민국 No.1 물산업 전시,
WATER KOREA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3. 21^{Tue} - 24^{Fri}

김대중컨벤션센터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여름여름광주
여름여름광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Gwangju Metropolitan Waterworks